

4/23(목) 다니엘 묵상 11

다니엘 2:44-4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왕의 꿈 속에 나타난 '손대지 아니한 돌'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상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 2:34-35절과 44-4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기한 나라는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단 2:34-35절

먼저 느부갓네살왕의 꿈에 나타난 이 나라에 대한 환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손대지 아니한 돌(34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꿈 속에 등장하는 다른 나라들은 모두 한 신상의 몸에 해당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사람이 만들거나 또는 사람에 의해 산에서 절단된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나라들의 특징은 나라의 중심이 왕들이었지만 이 나라의 특징은 사람 왕이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34하-35절).”** 이 말씀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군가에 의해 어디선가 날아와서 신상을 치고 부서뜨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쇠와 진흙의 발'은 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일이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지게 될 사건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증명하는 것이 쇠와 진흙으로 된 발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부서져 바람에 모두 날리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2:44-45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특징이 이스라엘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둘째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셋째로, 이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35절 하반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나라와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나라'였습니다(막 1:14-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은 그가 계셨던 하나님나라('천국')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며 공생애 동안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복음과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과 목적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시기를 종말의 때로 인식했 습니다(히 1:1-2,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고전 10: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시작(성취)되었지만 아직 재림의 때는 오지 않은 것(완성)입니다(Already... but, not yet).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이 땅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결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미국 또는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둘째로,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바울서신에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로마의 시민이자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나라의 원리와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단지 과거 신사참배와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신앙인들의 고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 등등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모범과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그 원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 삶이란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사는 삶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도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가치, 원리를 지금 여기에서 앞당겨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정성국, *묵상과 해석*, 244-245)”**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말과 행동으로 일치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로 오늘은 CM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홍성진 선교사님(페루아마존)을 위해서 중보합니다.